브루스 웰트키 박사, 시편, 강의 24

© 2024 브루스 웰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4, 메시아 시편, 시편 16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마음 속으로 더 온전하게 들어가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면 우리는 영적인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고 비평과 양식 비평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는 수사학적 접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아에 관한 시편을 읽거나 Amiralt가 말했듯이 왼쪽 눈은 역사적인 왕에게, 오른쪽 눈은 그가 대표하는 이상적인 왕에게 두는 메시아적 접근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기 전에 기도로 강의를 시작합시다.

아버지,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곳에 경계선이 주어졌습니다. 즉, 당신은 우리의 부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당신 외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아들에 대해 생각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느니라. 그의 말을 들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에 실체를 더하시고, 우리의 덕에 질서를 더하시고, 우리의 고백에 확신을 더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신실함에 목적을 더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좋은 일들의 창시자이시며 우리는 그로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시편 기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피합니다. 아멘.

괜찮은. 강의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귀하의 노트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니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상의 완성이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나중에 강의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특히 메시아의 부활을 다루는 시편 16편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메시아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단어의 어원이나 그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당신의 노트에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야,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입니다.

그리스어를 통해 영어로 메시아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는 Mashiach입니다. 그것은 루트 mashach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 마샤흐는 칠하다, 바르다, 칠하다,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어제 왕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선지자가 기름병이나 숫양 뿔을 가지고 올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왕을 쓰러뜨릴 것이다. 그는 향유를 왕에게 부을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왕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셋째, 우리는 그 기름부음으로 왕에게 권능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말씀의 근본 의미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상적인 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이상 A, 보편적으로 정의로운 왕국의 이상을 가져올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메모에 썼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정의와 평화의 보편적 통치를 확립할 이상적인 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나는 시대의 끝이 역사의 끝보다 낫다고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10계명과 의에 따라 통치하는 이상적인 왕을 보내실 것이라는 이 신학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고 형벌을 내리신 에덴동산에서 그 기원이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뱀과 그의 거짓말을 동일시한 여자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 여자에게 새 영을 넣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여자에게 적개심을 넣어서 그녀가 뱀을 거부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네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미 여기에는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을 멸망시키고 그의 후손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중에서 그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가 고난을 통해 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의 발꿈치를 짓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덴동산에서 그 권리를 얻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뱀의 후손을 이기고 여자의 후손을 구별하는 후손, 곧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식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브는 가인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는 뱀의 씨로 밝혀졌고 대신 셋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까지 셋의 전체 계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아들 중에서는 셈이 될 것이요, 함이나 야벳이 아니라. 그러면 셈의 자손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12지파가

있고 우리는 그것이 유다 지파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홀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유다 지파 중에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후,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집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그의 왕조는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아들 안에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실현될 것입니다. 모든 왕조는 결국 멸망했지만 그의 왕조는 결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뱀은 다윗의 집을 멸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 그는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왕의 예식은 다윗의 씨나 후손을 등불이나 빛에 비유합니다.

생일 케이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작은 요아스를 제외한 모든 촛불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번의 깜박임을 통해 그의 왕국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로 끝난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아들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탄이 꺼버린 속임수의 생일 촛불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생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왕조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국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 즉 도덕적 왕국에 의해 다스려질 통치 영역이다. 그리고 그 왕국은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왕국은 오늘날 의의 통치를 확립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통치의 상징인 영원한 왕좌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동안 그의 후손에게서 왕좌를 빼앗으셨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언제나 다윗의 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제 아이들에게 했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라이오넬 기차 세트를 주었는데 아이들은 항상 변압기를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트랙 주변에서 기관차 경주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변함없이 궤도를 벗어나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가져가서 선반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것이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신약 중간기에 왕위를 잃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는 전례 시편인 대관식 시편의 해석에서 보았듯이 오늘날의 현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한 보좌이다. 그것이 다윗의 집의 배경이요, 당신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좌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집에서 나오는 이상적인 왕이 와서 보편적으로 의로운 왕국을 세우겠다는 소망의 참된 기원입니다. Mowinckel과 같은 사람들은 창세기가 늦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다윗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에덴동산으로 데려갑니다.

글쎄요, 그것이 메시아 희망의 기원이자 발전의 어느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메시아적 기대와 메시아적 희망에 대한 시편의 기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이 주로 왕에 관한 것이며 많은 시편이 왕을 찬양하고 매우 이상적인 용어로 왕을 제시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편에서 내 아들아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이방 나라를 땅 끝까지 이르리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쳐서 부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의로운 나라를 세우려 하심이라. 또는 시편 110편에서 우리는 또 다른 대관식 예식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에 대한 기대는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주 왕국을 세우는 왕이자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궁켈은 그것을 실제 인물에 대한 기대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미래의 왕이나 메시야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어로 Gunkel의 경우 Hofstahl 이었습니다 .

즉, 법원의 과장된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디어의 과장이었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큰 이미지를 채울 것이라는 기대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모윈켈은 자신의 책 '오실 이'에서 그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당신의 각주에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왕에게 영광을 돌리고, 왕을 찬양하는 이 시편을 통해 바다에서 바다까지, 해안에서 해안까지 왕의 통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장시켰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바다에서 바다로, 해안에서 해안으로 확장하여 우주적이고 의로운 왕국으로 만듭니다. 315페이지 C에서 나는 대관식에서 불렀던 시편 자체에서, 아마도 왕의 생일일 수도 있고, 다른 순간에는 이상적인 왕과 기대를 축하하기 위해 다윗이 이상적인 왕에 대한 예언적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노래는 실제로 첫 번째 성전 기간에 역사적인 왕을 위해 노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포로 생활 중에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왕을 위해 부르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으로 그린 이 시편들은 이제 왕에 대한 언급이 되고 이제는 미래가 됩니다. 이 왕실 시편은 미래의 메시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 대관식에서 이상에 대한 희망을 보고 들리게 했던 역사적 왕의 어깨에 이 시편이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들은 모두 어깨가 너무 작아 보라색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후계자에게 주어졌으나, 각 후계자는 전임자보다 더 작았고, 대체로 더 작았으며, 결국에는 왕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입을 때까지 기다리는 왕실 시편의 옷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쓰기에 합당한 예수님이 되어서야 그분은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이상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주의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은 신구약 중간기의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이원론, 즉 급진적인 이원론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에서 당신은 현재 시대를 미래 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현 시대는 죄와 죽음과 악의 시대로 생각됩니다.

미래시대는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시대, 이상적인 시대이다. 현재의 악한 시대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미래시대는 메시아의 통치 아래 있다.

이 문헌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밝히신 이 메시야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새로운 의의 통치를 지상에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 사이에 근본적인 이분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탄이 통치하는 옛 시대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 시대를 분리시키는 격변적인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새 시대를 소개하시면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그가 권세를 잃고 사탄보다 크므로 그를 이길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와 관련된 대격변적인 사건입니다.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메시아 아래서 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오셔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는 심판이 있을 때를 불의 때로 묘사하며, 쭉정이는 불타고 의인들은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고 메시아 아래서 이 새 시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왔고 세례 요한은 이것이 이상적인 왕이고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 있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가 올 때 초림이 있고 그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할 것이며 죽음의 형벌을 스스로 당할 것입니다. 그가 재림하여 우주이상왕국을 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초림 때, 죄로 인해 고난을 받고 죽음을 겪게 될 때, 동시에 그는 이미 새 시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현된 종말론에서 알려진 것은 그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급진적인 이분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과 감추어진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묵시적인 옛 모델, 현악의 시대, 미래의 의의 시대는 무엇인가, 이제 더욱 확장된다. 그러므로 밀씨를 뿌리는 사람의 아들이 있지만, 동시에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보다 열등하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잡초를 뿌리고 있으며 그 둘은 미래까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때가 다시 오면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잡초나 가라지에서 밀이 근본적으로 분리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이분법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초림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셨지만 그것은 혼합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메시아의 두 번의 강림과 그의 성취와 신비의 형태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신약성경의 개요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신약성서에서 시편의 역할에 대해 316페이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말했듯이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통치하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합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시편을 그리스도의 수난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모두 담고 있으며, 그것들이 초림과 재림에 속했음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283번 직접 인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중 116번은 시편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즉, 구약성경 인용문의 41%가 시편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나는 또한 시편이 신약에서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예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텍스트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한 이 시편의 성취이십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메시아가 메시아에게 이 새로운 시대, 로마를 멸망시킬 정치적 시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과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그 주위에 벽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포도를 으깨기 위해 그 안에 포도주 틀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감시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먼 여행을 떠나는 동안 포도원을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그는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소작인들은 집주인의 종들을 붙잡아 때렸다. 그들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고 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지주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종들이 그들이 거부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도 똑같이 행하여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성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시편 118편 23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내용을 읽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도원을 좀 더 지속했어야 했는데, 주인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는 포도원을 차지할 것이다.

그는 소작인들을 파괴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 새로운 소작인,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에게서 왕국을 빼앗아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해석하겠습니다. 그는 왕국을 이방인, 대부분 이방인 교회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에는 교회가 거의 전적으로 이방인이 되었고 그는 그것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곧 메시아가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절은 예견된 일이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지 직접적인 성취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배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시편 41편의 성취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떤 경우에 병들었을 때 그의 원수들이 그를 비방하고 그에 대해 말했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빵을 나눠 먹던 나의 친한 친구, 내가 믿었던 친구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유다의 예언의 한 유형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고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유다에게 성취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사용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예언의 성취, 증거 문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묻기에는 너무 큰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내 친구들이 나에게 등을 돌린 다윗의 시편을 본다면 결코 그것을 예언으로 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이 예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그 둘을 어떻게 합치나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시편을 읽을 때 원래 다윗이 내가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는 말을 했을 때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그 경우에 그것이 예언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내 우편에 앉아 있는 대관식에서 그가 우주적인 왕국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진짜 예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편 16편에서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한 사람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닌 부패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한편으로는 실제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형론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유형을 겪을 때, 당신은 그 유형이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의도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발람과 그의 당나귀가 있습니다. 발람과 그의 당나귀는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당나귀가 발람에게 있었던 것처럼 발람은 발락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당나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나귀는 발람의 일종이고 발람은 발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았지만 발람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표의 성취에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세 번이나 보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무엇을 하는지 보자. 그는 들판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로 그는 발람의 발을 벽에 짓밟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그냥 그 아래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발람은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세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의 눈은 활짝 열려 있다. 그는 사물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압 왕보다 이스라엘 왕이 우세한 것을 볼 때마다 그 계시는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세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에게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발람이 세 번째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표의 성취에서 발락이 세 번째로 이 예언을 했을 때 우리는 발락이 화를 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당나귀를 이기고 싶을 때 당나귀가 기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적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일종의 발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사진이군요. 내 요점은 발람이 이 경험을 겪는 동안 자신이 일종의 더 큰 사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유형학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겪는 동안, 당신은 그것이 더 큰 사건의 그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데이비드가 그 특별한 경우에 자신이 유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이 의도한 유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후의 계시와 예수님의 경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형의 이행이 있습니다.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까운 날에 증거 본문으로 인용되는 시편의 역할로 되돌아갑니다. 시편은 사도들이 교리를 가르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인간의 부패와 죄의 보편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시편 14편과 공관 평행 시편인 시편 53편을 포함하여 여러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예언을 가르치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것이 교회 고백의 전례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시편이 사용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316페이지에서는 시편 기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을 50번 이상 언급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님께서 시편에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므로 시편을 자신과 관련하여 읽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시편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학자들의 주석을 읽을 때면 그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시편을 얼마나 적게 읽거나 읽습니까?

317페이지에서 나는 이 50개의 구절 중 일부를 인용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열정, 열정, 영광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열정을 언급하는 시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 영혼이 불안하다고 말씀하실 때 시편 6편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으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시편 2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할 때, 그의 옷을 나누었고, 내 옷을 나누었는데, 이는 시편 22편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말할 때, 내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시편 31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가지 않고 거기 다 써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모두 읽어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가 다윗을 자신의 모형으로 보고 있거나 자신에 대한 예언적 예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왕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왕을 다룬 시편 10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시편 전체가 전부는 아니지만 시편의 대부분은 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에도 시편 69편에 나오는 것은 그의 집을 위한 열심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시편을 예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봅니다.

318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저는 메시아 시편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것을 나누고 이것은 Delitzsch의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적이고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왕인 다윗은 그의 가장 큰 아들인 하늘의 왕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에 데이비드는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신이 그런 유형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계시에 비추어 보면 당신은 전체 계시에 비추어 예표론만 볼 뿐입니다. 전체 계시에 비추어 볼 때 역사적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아들의 예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언급하는 이 시편들은 간접적으로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서에서 그렇게 읽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것은 전형적인 예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기 위해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경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독특하게 성취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2편에서는 다윗이 어떤 위기를 겪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자신의 경험을 십자가의 관점에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갈증을 상상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갖고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그 언어는 그 자신의 역사적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될 때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전형적인 예언을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고난과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의 언어는 자신의 경험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종류입니다. 그것은 유형과 예언의 혼합이다.

일부 시편은 순전히 예언적이며, 그것은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시편 110편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전형적인 예언을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특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시편 93편과 99편에서 본 주님의 즉위 시편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 시편이 사용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시편 해석에 있어서 메시아적 접근 방식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빌, 나는 당신의 의견과 에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분명했나요? 그렇게 분명합니까? 응, 정말 분명했어. 예언으로 돌아가서, 내가 배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생각해 낸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이러한 예언이 간접적이거나 전형적인 첫 번째 범주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나는 이집트에서 나온 호세아를 생각하고 있고, 내 아들을 불렀으니, 이것은 일반적인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같은 종류의 일을 반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이 그 일부일까요? 그러므로 처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일을 주기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유형이 됩니다. 내 말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은 마치 그들이 한 구절을 읽는 것처럼, 음, 그건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성서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을 설명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따라서 유형을 지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유형은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애굽에서 호세아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좋아요. 응.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마태복음의 여섯 가지 출생 설화 전체를 아우르는 유형으로 본다. 그들은 모두 예언에서 성취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베들레헴의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처럼 매우 직접적이지만 무죄한 자들의 학살로 예레미야에게서 보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들어갈 때 그는 그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지만 하나의 모형은 신이 의도한 그림.

당신이 그것을 신성하게 의도된 그림으로 볼 수 있으려면 완전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형은 더 큰 사건, 미래의 더 큰 사건에 대한 신성하게 의도된 그림입니다. 좋아요.

그것이 내가 유형론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사건의 그림이지만, 신성하게 의도된 그림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가 마쉬를 따르는가이며 유일한 합법적인 유형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형들입니까? 아니면 신약성서에 명시되지 않은 유형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가 유형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영에 대한 개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갈라디아서 그리고 두 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모형입니다. 응.

글쎄요, 사실 그건, 제 생각엔 그가 우화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즉, 내 생각엔 그가 우화할 때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본문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유형을 넘어서는 것입니까? 나는 시내산과 예루살렘, 하갈, 시온, 사라의 경우가 본문 자체에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데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지만, 이에 대한 나의 초기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4, 메시아 시편, 시편 16편입니다.